

<구역모임 교재 / 2026년 2월 22일 주간>
“ **겉옷을 벗어주는 자, 창을 드는 자**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예: ‘괜찮아’, ‘바쁘다’, ‘어쩌지’, ‘감사해요’ 등) 그 말이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나눠봅시다.
2. 내 안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디서 시작됐나요? 요즘 내 마음을 흔드는 시기·질투·비교의 촉발점(트리거) 이 있나요? (예: 누군가의 칭찬, 성과, 인정, 관계, 자리/역할, 영향력 등) 그 순간 나는 “축복”보다 “불쾌함/경계심”이 먼저 올라왔던 장면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3. 나는 ‘**창**’으로 반응했나, ‘**겉옷**’으로 반응했나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혹은 나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사울처럼 **통제/견제/거리두기/비난(창 들기)** 으로 반응했나요, 요나단처럼 **격려/지지/기회 열어주기/자리 내어주기 (겉옷을 벗어주기)** 로 반응했나요?
4. 이번 주에 내가 “**겉옷을 벗어 덮어줄**” 실제 행동을 딱 1가지 정해봅시다.
 -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 내 주변 이웃(후배/동역자/직장동료 등)에게 권한 위임 혹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잠시 기도 하고 말/표정으로 상처 주지 않기
 -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 작은 섬김 하나 실천하기
 - (직접 적어보기)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시1~3장)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며,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그 결과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세대를 광야에서 마치게 하셨지만, 동시에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을 다시 열어 주셨습니다. 바산 왕 옥을 물리치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길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실패와 승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요일(시 4~6장)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지키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쉼마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신앙의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공동체의 사명임을 가르칩니다.

수요일(신 7~9장)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히 구별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때문임을 밝히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닌 은혜임을 분명히 합니다.



목요일(신 10~12장)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시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의 길이 분명히 제시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 드리라고 명령하며, 우상 숭배의 관행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배의 순수성과 중심성을 강조합니다

금요일(신 13~16장)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를 단호히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구별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 절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신앙은 기억과 감사 위에 세워집니다.



토요일(신 17~20장)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과 책임이 제시됩니다. 왕은 교만하지 말고 율법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와 전쟁 규례를 통해 공의와 자비가 함께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일(신 21~24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 법들이 제시됩니다. 약자 보호, 가정 질서, 정결, 배려와 책임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거룩은 공동체의 구체적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 성경을 읽고 난 후 각자 느낀 점을 나눕니다.**

*** 합심기도 :**

1. 내 안에 시기와 질투를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2. 창을 선택하는 사울의 행동이 아니라 겉옷을 벗어주는 요나단으로 살게 하옵소서
3. 이번 주 결단한 겉옷을 벗어주기 위한 실천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455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주영 목사)